

# 광주시교육청, 학생독립운동 백서 발간...전국 보급

## 장회국 교육감 “자료활용 기대”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독립운동 백서인 '40문 40답'으로 알아보는 11·3 학생독립운동' 책자를 전국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에 보급한다고 29일 밝혔다.

학생독립운동 백서는 공문을 통해 전국 1만5000여 학교에 배포되며 197곳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3권에서 5권씩 배부된다.

백서는 지난 8월 제작에 착수해 지난 18일 검토를 완료하고 24일부터 보급에 나섰다.

이번 백서 개발에는 신봉수 광

주예술고 교사와 김보름 문화중 교사, 황행자 광주송일중 교사, 송운혁 광주서석고 교사가 참여했다. 노성태 국제고 교사와 유민지 장덕고 교사, 윤덕훈 수완하나중 교사, 강민경 조대여고 교사가 검토를 담당했다. 40문 40답으로 알아보는 11·3 학생독립운동 백서는 △학생독립운동 배경 △학생조직 △11월3일 당시 상황 △전국·해외로 확산 △법정 투쟁 △정신 계승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록에는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했던 국내외 320개 학교를 소개하

고 있다.

장회국 교육감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제에 과감히 항거했던 의로움의 실천이 학생독립운동이었다”며 “광주에서 시작했지만 이후 온 나라 학생들이 함께했고 멀리 해외까지 확산돼 3·1만세운동, 6·10만세운동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3대 민족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당시 의로운 학생들의 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전국 선생님들께서 이 자료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조인호 기자

# 전남교육청, 민주적 생활규정 마련 토론회 성료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수렴 개정작업 본격화



전남도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단위학교의 생활규정을 민주적인 내용으로 바꾸는 일에 본격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8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과 25일 세한대 학교(영암)에서 학생, 교직원, 학

부모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주적 생활규정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교구성원들이 지켜나갈 민주적 생활규정 마련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주체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인권 홍보영상'과 전남 학생들이 현재 입고 있는 '편한 교복 시연회'를 시작으로 민주적 생활규정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 대표의 주제발표, 방청객들과의 직접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학생들은 '학생다운'이라는 틀을 탈피한 자유로운 개성 표현, 벌점위주 사벌점제의 문제점, 전자기기 사용 허용 또는 제한 등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했다. 학부모들은 화장, 염색, 피마 등의 용모관련 주제, 전자기기 사용, 학생 인권과 교원의 조화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교직원들은 권리와 함께 책임을 다하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며, "학교구성원 토론을 통해 규정을 개정하고 지켜나가려는 노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담양교육지원청, 창의융합 릴레이 발명체험 한마당



담양교육지원청은 25일 담양 한재초, 수북초 학생과 교사가 참여하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릴레이 발명 체험 한마당'을 펼쳤다.

이번 '릴레이발명체험한마당'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담양교육지원청발명교육센터가 주관하여 전남도 11개 발명센터의

담당교원이 참여하여 메이커 활동 중심 발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메이커발명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설계하며 실제로 만들어 본 후 문제를 발견하고 다시 만드는 반복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만의 방법을 체계화하고, 탐구과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배우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운영 체험프로그램은 전남도 13개 발명교육센터 담당교사가 모여 메이커발명체험 교육으로 적절한 프로그램을 미리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담양=박종영 기자

# 광양 진월초, 서울테마 체험학습 진행

광양 진월초등학교는 23일~25일까지 2박 3일간 전교생이 서울역사문화탐방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이번 체험학습은 학부모 7명이 저학년 도우미 교사로 활동을 해주셔서 선생님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다.

그동안 전교생이 서울로 체험학습을 다니면서 저학년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담임교사들이 부

담이 많아 이번엔 학부모님과 사전 협의를 통해 모둠별로 조편성을 하고 체험활동 및 숙박지 관리, 안전지도에 교사와 함께 활동을 해주셔서 학부모가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되었다.

참가자(학부모 포함) 59명이 순천역에서 KTX로 이동한 후 서울에서 버스를 임대하여 학년군으로 일정을 달리하여 체험활동의 체험활동에 담임교사들이 부

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고학년은 박물관, 북촌, 인사동 체험거리 등으로 학생들이 협의하여 일정을 운영하였고 저학년은 주로 카리나아와 과학관 등 평소 가보기 어려운 곳을 체험하도록 운영하였다.

지역적으로 문화적 소외 해소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특히 난타 공연과 전시장 관람을 통해 문화예술 감수성을 길러주는 계기가 되었다.

# 전남공고-광산경찰서 MOU 체결,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 큰 기여



광주광산경찰서와 전남공업고등학교는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2018년 대비 범죄율이 22% 이상 줄고, 학교 안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전남공고는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 교권 침해 사례의 심각성과 학생 생활지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MOU를 체결하여 구체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추진해왔다.

예방활동으로 10월말 현재 등굣길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자살예

방캠페인, 금연캠페인을 11회 이상 실시했고, 학교 주변 취약지구를 주기적으로 순찰했다. 또한 학교 내 활동으로 생명위기 및 선도대상 청소년 다수와 학교전담경찰간 멘토·멘티 상담활동을 해왔으며, 1학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선도를 위한 사랑의 교실을 학기당 6회씩 총 12회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그 결과 다양한 학교 폭력 및 선도 관련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으로 학교 안정화에 많은 기여를 했고, 특히 지난 2018년 대비 범죄 발생률이 2019년에는 22% 이상 줄어드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오감 만족 문화나들이' 탐방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29일에 북구문화의 집에서 동부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원 60여명을 대상으로 '2019 지역문화시설 탐방 오감 만족 문화 나들이'를 개최하였다.

'오감 만족 문화 나들이'라는

부제로 진행된 연수는 지역 연계 문화예술교육 사업 일환으로 지역 문화시설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소양을 높일 수 있게 ▲문화예술프로그램 이해 및 소개 ▲북구문화의 집 시설 탐방 ▲목공체험으로 구성됐다.

송리나 교사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가졌으나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역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